

살레시오수녀회 한국 진출 50주년

겸손과 사랑으로... 청소년 司牧 반세기

광주 살레시오여중·고 1만 8,076명 배출
연극·전시·심포지엄 등 다양한 기념행사

'살레시오'라는 이름은 광주 사람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16~17세기에 살았던 이태리 출신의 가톨릭 성인 프란체스코 살레시오(Francisus Salesius·1567~1622)가 어떻게 21세기 광주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이 됐을까.

첫 번째 이유는 광주 살레시오수녀회가 초·여중·고교와 광주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한 광주 나자렛집과 원터 등 청소년 시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는 이미 광주의 몇 안되는 사립 명문초등학교로 자리잡았고, 여중·고교 역시 40년 넘는 오랜 전통으로 많은 '살레시오인'을 배출했다.

살레시오수녀회가 한국에 진출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이태리 성인 요한 보스코(Giovanni Bosco·1815~1888)가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도회'라는 이름으로 1872년 창설한 살레시오수녀회는 1957년 4월, 당시 서울교과장 노기남 주교의 초청으로 일본 관구에서 파견된 5명의 수녀가 서울 도림동 본당에 정착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열었다.

살레시오수녀회가 특히 청소년 사목(司牧)에 관심을 갖는 것은 창립자인 돈보스코 성인이 '인내와 온순, 겸손과 사랑을 실천했다'는 교육과 사목으로 덕이 높은 살레시오 성인의 뜻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광주와의 인연은 수녀회의 한국 상륙 이듬해부터다. 살레시오수녀회는 1958년 4월 살레시오여중을, 1961년에는 살레시오고교를, 그리고

1962년에는 살레시오초등학교를 차례로 설립했다. 지금까지 살레시오·중고를 거쳐간 사람은 1만8천76명, 살레시오초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7천999명에 달한다.

살레시오수녀회는 50주년을 맞아 2005년은 '원천을 향한 기억의 해', 2006년은 '현실을 향

한 감사의 해', 2007년은 '내일을 향한 출발의 해'를 정하고 3년 동안 매일 아침 기도문을 바쳤다. 슬로건은 '첫 마음, 그 열정을 다시!' 지난 9월초에는 서울 가톨릭대학교에서 '살레시오 청소년축제-울림(Echo)'을 열었고, 9월말에는 '50년 발자취 전시'를 개막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광주에서는 살레시오초등학교 강당에서 '2007 꿈나무 큰 잔치' 및 '돈보스코' 연극제가 열렸다. 오는 24~25일에는 가톨릭 광주대학교 최창무 대주교 등 성직자와 신자들이 참석하

는데 이태리 본원에 있는 '도움이신 마리아상(家)' 순례 행사가 광주시 동구 지산동 살레시오수녀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살레시오수녀회 민요한나 지산동 본원장 수녀는 "우리 수녀회는 돈보스코 성인의 뜻에 따라 50년 동안 광주의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해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누렸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소외받는 이주민 가족 특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지난 1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살레시오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2007 꿈나무 큰 잔치'에 참석한 살레시오수녀회 소속 수녀들과 학부모들이 초등학생들의 관현악 연주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은광교회 설립 60주년 축하 찬양제



광주은광교회(담임목사 전원호)가 올해로 설립 6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47년 광주시 북구 누문동에서 '누문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은광교회는 1971년 '광주은광교회'로 이름을 바꾼 후 신가·곡성·무안·목포 등 광주·전남 지역에 모두 13개의 개척교회를 설립했으며 미국 율리피아 교회 등 해외에 3개의 교회를 세웠다.

지난해 6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상현 장로)를 꾸린 후 10개 사업을 진행해온 은광교회는 15일 오후 7시 5-18기병 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수완 성전 시대'를 여는 60주년 축하 찬양제'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는 120명 규모의 연합합창대(사진)를 비롯, 총 250여명이 출연해 '저 높은 하늘에',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찬양의 교향악' 등 찬양가와 연극, 오케라, 칸타타 등을 선보인다. 김치곤씨의 지휘로 김시은·서반석·추현호씨 등이 독창자로 참여한다. 피아노와 오르간 반주는 최은영·김지은씨, 문의 062-526-46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종교칼럼

가을 들녘이 한층 깊게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미 추수를 마친 곳도 있지만, 최후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뜨거운 황금빛을 쏟아내면서까지 속을 익히고 물결을 이루는 들녘의 순례 길은 참으로 눈부시고 장엄하다.



김정웅

가을 들녘에서

이제 곧 추수의 손길에 닿아 뿌리만 겨우 남긴 채 아름답게 스러져 갈 것이라라. 봄이 되면 그마저도 뒤덮여지고 썩어 흙 속으로 남김없이 잠게 될 것이라라.

나는 들녘의 사계절을 좋아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냘픈 어린 종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넉넉하게 몸을 만들면서 기다리는 봄의 들녘은 여유가 있어서 좋다.

여린 종자들을 품에 한껏 품고 뜨거운 햇살과 거친 비바람과 같은 병충해와 때때로 목숨을 위협하는 태풍까지도 깨끗하게 견디며 품속의 것들을 지키고 살려내는 여름 들녘은 순교자처럼 붉어서 마음이 숙연해진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도 모자라 흠뻑 젖어 남은 마지막 몇 알까지 기꺼이 온갖 지나가는 식객(납식객)들에게 내어주는 빈손의 겨울 들녘은 사상이 없어 부럽다.

들녘의 사계절 중에서도 나는 특히 겨울의 들녘을 좋아한다. 어린 것들을 제 속에 받아들여 한 해 내내 몸속에서 키워내어 세상 뜻사람들의 밤이 되고 삶이 되고 영혼이 되면서도 정작 자신은 텅 빈 채 다시 세상의 차가게 얼어붙은 것들을 다 끌어안고 녹이는 모습이 참으로 의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겨울 들녘을 지나칠 때마다 들녘의 얼굴을 매만지고 쓰다듬는다. 그 값진 산고와 긴 세월의 수고로움이 그치지 않고 고맙기 때문이다.

들녘은 과분한 결실을 탐하지 않는다. 정직한 노동만을 받아들이고, 노동의 대가를 정직하게 되돌려준다. 들녘의 세계에는 딱한 거짓과 약삭빠른 장인의 문화가 없다. 자기도취의 권세와 헛된 희망의 정치가 들 어설 땅도 없다. 끝없는 경쟁의 눈이 빠뜨리는 가혹한 놀이를 즐기지도 않는다. 들녘의 세계는 세상의 약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자기 뉘만큼 맘껏 살다 떠나면 아쉬움 없이 돌아설 줄도 안다.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

광주불교교육원

어린이 역사문화기행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 스님)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초등학생들을 위한 '어린이 광주 역사문화기행'을 갖는다.

'빛과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광주의 대표 서양화가 오지호 기념관, 임진왜란의 마지막 의병대장인 김덕령 장군의 얼이 숨쉬는 충장사 유물관, 신라 고승 원효대사의 전설이 깃든 고찰 원효사 등을 둘러본다. 정의행 광주불교문화대학 교수가 해설한다.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1만5천원(점심 포함)이다. 문의 228-9098.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해남 미항사 괘불재

탱화 공개...음악회도

해남 미항사(주지 금강 스님)는 27일 오후 1시 문화축제 '제8회 괘불재(掛佛齋)' 그리고 작은음악회'를 연다.

괘불재는 조선시대 영조 3년(1727년)에 조성된 괘불탱화를 1년에 한번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행사에서 유래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괘불을 마당으로 보시는 '괘불이운(掛佛移運)', 차례를 올리는 '만물공양', 하늘·땅·사람에게 소원을 비는 '통천(通天)', '법문', '괘불봉안(掛佛奉安)'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1-533-3521.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Rooster Pants (루스터팬츠) featuring images of the product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moisture and odor control.

Advertisement for BM (BM公認仲介士事務所) real estate services,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Advertisement for a legal auction company (법원경매 전문회사) listing various items for auction, including real estate and vehicles.